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2				제 [ ] 선택
----	--	-------	--	--	--	---	--	--	--	----------

1.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이나 풍습 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을: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① 윤리학은 현실적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가?
- ②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주력해야 하는가?
- ③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규범과 원리를 제시하는 데에 주력해야 하는가?
- ④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 ⑤ 윤리학은 도덕 논증의 타당성 검토를 탐구의 본질로 삼아야 하는가?

2.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 연구원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을 느끼고, 욕구, 지각, 정체성, 미래에 대한 의식 등을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개체는 결코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 문제 상황 >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계속해야 할까?

A 연구원

- ① 모든 동물은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 ②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한 도구이므로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 ③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 동물 실험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④ 동물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기에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⑤ 삶의 주체인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행위가 옳은 이유는 그 행위가 오직 의무감에서 행해지고 그 행위 원리가 보편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특정 행위가 옳은 이유로 그 행위가 문제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다른 행위를 할 때보다 더 큰 효용을 산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상가가 ㉠ 고 생각한다.

- ① 행복의 실현을 도덕적 행위의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② 도덕 판단에서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공리의 원리에 따라 윤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한다
- ④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위해 정인 명령에 따라야 함을 간과한다
- ⑤ 행위보다 행위자의 성품에 비추어 도덕성을 평가해야 함을 간과한다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폭군인 걸(桀)이나 주(紂)가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며, 백성을 잃은 것은 백성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하를 얻으려면 백성을 얻어야 하며, 백성을 얻으려면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백성이 바라는 것을 하게 하고, 싫어하는 것을 빼놓지 않는 것이다.

- ① 군주는 국가를 귀중하게 여기고 백성을 하찮게 여겨야 한다.
- ② 군주는 천하를 얻기 위해 백성을 오직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
- ③ 군주는 백성의 뜻을 헤아려 그들의 삶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 ④ 군주는 백성에게 국가를 직접 통치하도록 권력을 위임해야 한다.
- ⑤ 군주는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증시해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에 비해 열등하다. 그 이유는 집단은 개인과 달리 자연적 충동들을 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집단적으로 나타날 때 더욱 생생하게 그리고 누적되어 표출된다.

- < 보 기 >
- ㄱ. 개인 간 갈등은 합리적인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
  - 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선의지의 함양이 필요하다.
  - ㄷ. 도덕적인 개인이 모인 집단이라도 비도덕적일 수 있다.
  - ㄹ.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강제력은 허용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이고 한 사람만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가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전제하는 셈이 됩니다. 어떤 문제에 관한 것이든 다수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드물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대립하는 의견들을 서로 부딪치게 하는 것만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① 절대적인 진리를 찾으려면 소수의 의견은 배제해야 한다.
- ② 다수가 옳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 ③ 인간은 인식과 판단에 있어서 오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④ 인간은 논쟁을 통해 진리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 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7.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결혼 안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맺는 성(性)적 관계만이 책임과 행복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나) 성숙한 사람들이 상호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성적 호감과 배려만으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가): 성적 관계에서 인격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 ② (가): 사랑이 전제된 성적 관계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나): 자발적인 동의만이 성적 관계의 도덕적 고려사항이다.
- ④ (나): 성적 관계에서 쾌락적 가치보다 생식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 ⑤ (가), (나): 성적 관계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8.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의학의 목적은 효과적인 수단을 도입하여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개입을 통해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는 달리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변형된 유전자 정보가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 제 생각은 다릅니다.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전이를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 큰 비용이 드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의 실행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가 실행된 이후에는 변형된 유전자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오히려 미래 세대에 장기간에 걸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①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의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 ② 유전자 치료는 미래 세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가?
- ③ 유전자 개입을 통해서도 유전적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가?
- ④ 많은 비용이 투입된 유전자 치료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은가?
- ⑤ 생식 세포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치료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9. 표는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를 상대로 한 가상 설문 조사 결과이다. A, B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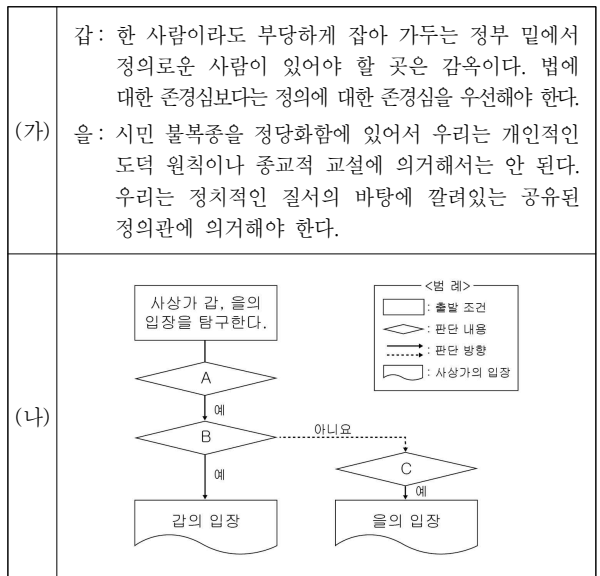
질문	응답	
	예	아니요
죽음은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	
우리는 순수한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 이데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가?	✓	
A		✓
B	✓	

< 보 기 >

- ㄱ. A: 죽음에 이르면 육체와 함께 영혼도 소멸하는가?
- ㄴ. A: 죽음을 인간이 피해야 할 고통으로 보아야 하는가?
- ㄷ. B: 죽음 이후에 비로소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 ㄹ. B: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가)의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ㄱ. A: 시민 불복종은 정의 실현을 위한 위법 행위인가?
- ㄴ. B: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ㄷ. C: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가?
- ㄹ. C: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다수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행위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은 어떤 학생의 필기 내용 중 일부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1. 안락사의 유형과 윤리적 쟁점**

1) 안락사의 유형  
 연명 치료를 중단하여 생명을 단축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약물 투여 등 구체적인 행위로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

2)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①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

- 불치병으로 인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
- 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

②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

-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
-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므로 결코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영원한 여성성이란 하나의 속임수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장에서 자연의 역할은 아주 작으며,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 남성은 여성과 관련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지만, 여성은 남성과 관련해서 규정되고 구별되는 존재이다. 남성은 주체이고, 여성은 타자(他者)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의 삶은 운명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의 강요된 삶의 방식일 뿐이다.

- ① 여성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② 여성성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되어야 한다.  
 ③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이다.  
 ④ 여성은 본성에 따라 정해진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⑤ 여성은 남성보다 선천적으로 모든 능력에서 우월하다.

13.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상대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길고 짧음은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된 것이고, 높고 낮음은 서로 상대적인 높이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위(無爲)로 일하면서도, 말 없는 가르침을 베풀어야 한다.



(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연기(緣起)를 깨달아야 한다.

- ① (가): 시비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② (가): 오륜(五倫)의 실천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③ (나): 인간과 자연은 상호 독립적인 실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④ (나): 불변하는 자아를 확립하여 자비(慈悲)를 실천해야 한다.  
 ⑤ (가), (나): 이상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14. 그림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살게 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따라 성립된 국가는 자연스럽게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과 자유 및 재산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에 의해 국가의 권위는 정당화됩니다.

< 보 기 >

ㄱ. 갑: 인간은 국가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ㄴ. 갑: 국가는 개인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형성된 인위적 산물이다.  
 ㄷ. 을: 인간은 생명과 자유 및 재산에 관한 자연적 권리를 갖는다.  
 ㄹ. 갑, 을: 국가의 권위는 인간의 본성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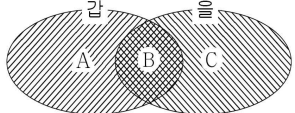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을 쓴 가상적 상황 속에서 선택된다. 이것은 원칙의 선택에 있어서 자연적 혹은 사회적 우연성의 결과에 의해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을 보장해 준다.

을: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나)



< 범 례 >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보 기 >

ㄱ. A: 분배의 공정성은 분배의 결과를 근거로 판단되어야 한다.  
 ㄴ. B: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ㄷ. C: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ㄹ. C: 최소 수혜자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자신을 이기고 예(禮)를 회복함으로써 인(仁)을 이룬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 예를 회복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	○ 하늘과 땅이 생기고 나서 만물이 생겼고, 만물이 생기고 나서 남녀가 생겼고, 남녀가 생기고 나서 ㉠ 이/가 생겼다. ○ ㉠ 은/는 인류의 시작이자 반복의 근원으로서 아무리 친밀하다 해도 서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손님 처럼 공경해야 한다.

< 보 기 >

ㄱ. 음양(陰陽)의 원리처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ㄴ. 서로에게 자애와 효도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ㄷ. 동기간(同氣間)으로서 우애 있게 지내야 하는 관계이다.
ㄹ.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관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갑, 을 사상가들의 직업관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임금은 씹씹이를 줄이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신하는 말은 직분을 경건히 수행하고 녹봉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을: 신은 사람들에게 각각의 소명(召命)을 부여하였다. 사람은 충실한 직업 생활을 통해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며, 자신의 부(富)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 ① 갑: 각자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공동체가 유지된다.  
 ② 갑: 개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해야만 한다.  
 ③ 을: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④ 을: 직업 생활에서 벗어나야 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⑤ 갑, 을: 정신을 쓰는 노동보다 육체를 쓰는 노동이 우위에 있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한 각각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파악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들을 물려받는다. 이러한 역할의 담지자로서 우리 모두는 삶의 주어진 사실과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

- ① 공동체의 전통은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  
 ② 도덕적 정체성은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③ 도덕적 가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도덕 판단에서 행위자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⑤ 덕성의 함양보다 보편적 도덕 법칙의 탐구를 중시해야 한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모든 법령의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형벌은 오직 그것이 더 큰 악을 제거할 것이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을: 형벌은 자신과 시민 사회의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형벌은 단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 보 기 >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과 교화에 두어야 하는가?	
		예	아니오
형벌의 본질은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는가?	예	A	B
	아니오	C	D

- |     |   |     |   |
|-----|---|-----|---|
| 갑   | 을 | 갑   | 을 |
| ① A | B | ② A | C |
| ③ C | B | ④ C | D |
| ⑤ D | A |     |   |

20.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년 ○○월 ○○일
<b>칼럼</b>	
<p>최근 'OO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전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청렴 지수'를 조사한 결과 56%가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더라도,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직업 생활에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렴함은 천하에서 큰 장사[賈]이다. 그러므로 크게 장사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름게 여긴다. 따라서 재물은 사람들이 크게 욕심내는 것이지만 무릇 목민관은 인(仁)의 도(道)를 이루기 위해 재물을 버리거나 취하지 않기도 한다." ... (후략).</p>	

- ① 눈앞의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중시해야 한다.  
 ② 청백리(清白吏) 정신을 본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청렴한 공직자가 되려면 모든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  
 ④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⑤ 바람직한 직업 생활을 위해서는 청렴 의식을 지녀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